

말의 품격과 은행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언어의 품격'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고. 입을 통해 뱉는 말이 불과 30초밖에 안되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남아 복이 되든, 화가 되든 작용한다는 의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갑질하고 있다'며 은행을 다시 한 번 직격했다. 올해 초 '은행은 공공재' 발언으로 은행권의 고통분담을 요구한 이후 두번째다. 종노릇, 갑질 등 표현이 조금 더 격해졌다. 은행을 압박하려는 포석이다. 주요 은행들이 바빠졌다. '상생금융 시즌2' 묘안 짜기에 바쁘다. 대통령의 격한 발언에 이달 들어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발빠르게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이자캐시백,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으로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도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금융 취약계

층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신한금융의 지원 규모는 하나금융보다 50억원 많은 1050억원. 그렇지만 금융당국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공감대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생색내기 수준이 아닌 넓이와 깊이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은행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다.

결국 은행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막을 장치 마련은 두 말 하면 잔소리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은행은 비가 올 때 금융 소비자의 우산 역할을 해야 한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의 품격과 절제력을 엿볼 수 있어서다. 결국 좋은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말에서 시작된다. 입에서 나온 30초의 말이 상대방을 어렵게 만든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은행권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절제 대신 직

설법을 썼다. 그 말이 순기능(상생금융 확대)으로 작용하겠지만 부메랑(부실증가 우려)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은행이 이자장사를 한다고 핀잔을 주지만 시장경제에서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각 은행이 처한 여건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다.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 배당만 늘린다고 '미운털'이 박힌 형국이다. 은행은 국가가 내준 라이선스로 영업을 한다. 나라님이 크게 혼을 내지 않아도 말을 잘 들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은행을 향해 격하게 반응하기 이전에 금융당국이 먼저 나섰으면 어땠을까. '가져오면 좋은 것을 고를게'라며 안일했던 것은 아닐까. 은행에 상생금융안을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금융당국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컨설팅을 할 수도 있었다. 좀 더 너그러워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도 있다.

상대방을 꼬집을 때도 언어의 품격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특정 업종을 향한 격한 발언이 아쉬운 이유다.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은행은 물론 은행업과 관련있는 모두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다. 에둘러 표현할 수도 있었다. 그것이 정치이고, 통치다. 나눈셈이나 뺄셈보다 덧셈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리더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 11월 17일 (음 10월 5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나 불청객이다. **48년생** 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60년생** 상식 밖의 일이었으나 실적에는 도움. **72년생** 내 것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84년생** 건강하게 살게 되니 조상님께 감사.
 - 37년생** 매대는 망설임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49년생**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일시적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73년생** 세상은 끝이 없는 넓은 바다. **85년생** 돈은 없으나 기술이 다양하여 대우받던 날들.
 - 38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저하니 실망은 금물. **50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마라. **62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이 상쾌하고 나아갈 길도 보인다. **74년생** 돈에 큰 기대는 하지 말 것. **86년생** 잊고 살다 보니 낙원이 따로 없다.
 - 39년생** 자식이 시험이 목전이라면 관용 기도를 해볼 것. **51년생** 지혜는 부족하나 근면 성실로 극복한다. **63년생** 한가지로 밀고 나가라. **75년생** 세상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다. **87년생** 돈보다는 기술로서 능력을 키워라.
 - 40년생** 나를 이해해 주는 배우자가 있어 감사. **52년생** 결실에 보일 때 강하게 밀고 나가자. **64년생** 문서나 계약을 꼼꼼하게 살펴라. **76년생**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게 마련 생각해보라. **88년생** 주변에 근거 없는 말에 동요되지 않도록.
 - 41년생** 남이 칭찬을 해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 **53년생** 피상에 말리지 말도록 해야. **65년생** 남의 험담에 끼여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 **77년생** 자신을 알면 흥볼 것도 없다. **89년생**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
 - 42년생** 사돈이라도 항상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현명. **54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66년생**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라. **78년생** 운전 시에 양보하도록. **90년생** 친구의 깊은 우정에 감사.
 - 43년생** 모임이 있어 먹을 복이 많은 날. **55년생** 작은 일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 **67년생**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79년생** 뜻이 있다면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공부하라. **91년생** 연인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인내를.
 - 44년생** 누구에게나 공정은 인생길을 반전. **56년생** 혼자서 하는 직업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68년생**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80년생** 언행을 조심하고 음주를 주의하도록. **92년생** 부인에게 하나를 일러주면 셋을 알게 되니 기쁘다.
 - 45년생** 남의 조언을 가버어 여기저기 말라. **57년생** 금전 문제로 마음의 근심이 쌓인다. **69년생** 헤어지려는 이성에게 너무 조바심하지 말라. **81년생** 공연한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93년생** 작은 일이라도 신중히 처리해야.
 - 46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운 법이 있는 법. **58년생** 노력하니 성과도 다르다. **70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도 거칠 것이 없다. **82년생**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94년생** 이직은 행복이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진 벌칙지.
 - 47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59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애하길. **71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이다. **83년생** 조금해하지 말아라. **95년생** 실적이 없다면 나이가 들어 공상맞은 초라한 모습이 된다.

스페인 총리 대행의 사면 거래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경제부)

필자의 스페인 마드리드 숙소 앞에는 하원 의사당이 보인다. 양원제인 스페인에서 4년 임기로 구성되는 350명의 스페인 하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이곳에 전문가가 감동고 있다. 숙소에 갈 때 마다 총기를 휴대한 스페인 경찰들은 목적지를 확인한다. 방승국은 야외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중계차도 진을 쳤다. 정권 연장을 위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대행이 '사면 거래'라는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이다.

스페인사회노동자당(PSOE)는 지난 9일(현지시간) 카탈루냐(스페인의 북동부 자치주) 분리주의 정당 '카탈루냐를 위해

함께' 정당과의 협상에서 정부 구성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산체스 총리 대행은 지난 5월 사회노동자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7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렀다. 조기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했다. 원내 1당이 야당인 국민당(PP)이 정부 구성을 위한 총리 인준 투표에서 과반을 점하지 못해 부결되자 산체스 총리 대행에게 기회가 넘어왔다.

산체스 총리 대행은 좌파 정당들과 분리주의 정당들의 지지를 확보해 정부 구성인준 투표 의결정족수 확보에 나섰다. '캐스팅보트'인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과 협상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1400명에 달하는 카탈루냐 독립운동 연루 인사의 사면이었다. 그중엔 2017년 분리독립 운동 관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되자 벨기에 브뤼셀로 망명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

탈루냐 자치정부 수반도 있었다.

카탈루냐주는 첨단 산업과 농업 등이 발전해 스페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만큼 부유하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 2017 카탈루냐주의 독립을 선포했지만, 중앙정부가 주의회를 해산하고 자치권을 박탈해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집권을 위한 '사면 거래' 소식이 알려지자, 스페인 우파 정당과 지지자들은 사회노동자당 당사가 있는 마드리드 페레즈 거리에 모여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 스페인의 판사와 검사들은 행정부의 사면권 남용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카탈루냐 독립'이라는 스페인의 오래된 사회 균열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15일과 16일 하원 의사당에서는 정부 구성 인준을 위한 토론과 표결이 있어 스페인 정국은 더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pht285@



김상회의 **사계**
고수와 하수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고수라고 한다. 요리 바둑 공부 운동 어느 분야든 고수가 있다. 남달리 기량이 뛰어나 성과가 좋고 보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다. 투자의 세계에도 당연히 고수가 있다. 필자가 알고 지내는 주식투자 고수는 수익과 손실을 넘나들며 흐름을 탄다. 고수라면 수익만 내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신이 아닌 이상 손실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종합으로는 꽤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고수가 맞다. 가끔 팔자상담을 와서는 투자도 인생살이도 모두 쉽지 않다며 웃음을 보이고는 한다.

평범한 투자자는 일명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투자자이다. 투자 고수를 보면 일반 투자자와는 뭐가 다를까. 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하는 방법과 마음 자세가 개미와 다르다. 고수는 먼저 수익을 줄 만한 기업을 찾는다. 그런 기업을 찾으면 적정 주가가 얼마일지 계산하고 주가가 적정가치보다 낮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조금 해하지 않는다. 주가가 가치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매입한다. 주가가 오르내려도 흥분하지 않는다. 호황기가 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도에 나선다는데 긴 호흡으로 확실한 수익을 추구하는 길을 간다.

개미는 큰 고민 없이 주식을 산다. 사고 난 뒤에는 주가가 조금만 오르고 내려도 어쩔 줄 모르다가 쫓기듯 팔아버린다. 고수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흔들림 없이 투자하고 개미는 갈팡질팡한다. 인생을 사는 것도 비슷하다. 팔자와 운세를 조망하고 그 흐름을 타면서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쩔 줄 모르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다. 인생길도 운세를 바탕으로 소신 있게 걸어가면 하는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 365 0

스도쿠 365 10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로 고이도의 알과 지혜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3	2		9		6		
								9
	9					3		
						1	9	
	7		2		6			4
	4	6						
			8					5
4								
	5			1		4	8	2

4				9		7	8	
5		7		4				
					8		5	
1	3							
	5							4
							8	1
		9	2					
				7		2		9
2	7		6					5

2	8	7	6	1	4	8	9	9
4	8	9	8	7	9	6	1	7
1	9	6	7	9	8	8	2	4
9	4	2	1	8	6	9	7	8
8	7	8	9	9	2	1	4	6
9	6	1	4	8	7	9	8	2
8	1	8	2	7	9	4	6	9
6	2	9	8	4	8	7	9	1
4	9	4	9	6	1	2	8	8

9	8	7	6	1	4	8	9	9
6	1	2	9	4	8	7	9	8
8	9	4	7	1	2	9	6	8
1	8	8	9	9	7	6	2	4
4	7	6	2	8	1	8	9	9
9	2	9	4	8	6	8	7	1
7	9	1	8	9	2	8	6	9
2	6	9	1	7	8	4	8	9
8	4	8	6	2	9	9	1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1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